

주말엔 '꿈다락 문화학교' 가요

문체부, 이달부터 토요일문화학교 700개 운영... 온 가족 함께 참여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회장 김혜경)와 함께 4월부터 매주 주말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 700여 개를 운영한다.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자유롭게 즐겁게 소통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간단한 주말여가문화를 만들고,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미술,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박물관, 도서관, 문화회관 등의 시설에서 진행한다.

◇분야별·주제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기획 프로그램'과 ▲17개 시도 지역센터에서 진행되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한문연에서 운영하는 '예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 등 세 갈래로 이루어진다.

기획프로그램으로는 ▲예술대학과 연계해 예술과 건축, 인문학 등을 융합한 통합 문화예술교육 '주말예술캠프스' ▲북카페, 도서관 등 문화 공간을 활용해 작가와 함께 가족의 일상, 감정, 생각 등을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일상의 작가' ▲어린이가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시각예술 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이 가진 고유의 세계를 발견하고 표현해보는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미술·건축·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별 맞춤형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가족오케스트라·합창', '건축 문화' 등을 진행한다.

17개 시도 지역센터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단체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자원을 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센터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와 함께 4월부터 매주 주말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 700여 개를 운영한다.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가족캠프 등)도 추진한다. 한문연에서는 문화회관의 뮤지컬, 클래식, 공연, 전시 등과 연계해 아동·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예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문체부는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8년 차를 맞이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협업과 소통에 기반을 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일과 여가 균형 시대의 가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우수 프로그램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 일정과 내용, 장소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누리집(<http://toyo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참여 신청(무료)을 우선 접수한다. /뉴스

“사랑만이 내가 살아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공지영 작가,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개정판 출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를 만난 후 나는 내 어둠 속을 헤치고 죽음처럼 숨 쉬고 있던 그 어둠의 정체를 찾아냈다. 그가 아니었다면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들. 지독한 어둠이 줄 알았는데 실은 너무 눈부신 빛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게 어둠이 아니라 너무도 밝은 빛이어서 맡아버린 것은 오히려 내 눈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으리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신의 영광을 이미 나누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로 인해 깨달았으니까”

작가 공지영(56)의 문학 앤솔러지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개정판이 나왔다. 2012년 출간한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에 '높고 푸른 사다리'(2013), '발에게 주는 레시피'(2015), '시인의 밥상'(2016),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2017), '해리'(2018)를 더했다.

공 작가는 작품 25편 중 다시 들려주고 싶은 문장들을 골랐다. 자신의 일상 사진도 넣었다. 사랑과 인생에 대한 통찰이 엿보인다. "사랑만이 내가 살아 있는, 그리고 나를 살아 있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견뎌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다. 사랑만이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이자 진정한 위안이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날마다 연습하면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어려운 역경들을 발뚧이 들어 올리는 널 발견하게 될 거야. 장미란 선수의 어깨가 처음부터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렸던 것은 아니잖아.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날마다 조금씩 그리로 가보는 것. 조금씩 어렸던 그쪽으로 가 보려고 애쓰는 것. 그건 꼭 보답을 받아. 물론 너 자신에게 말이야"



"평에 뿌리박은 모든 것들은 땅에서 길어 올린 것들을 도로 내놓고 땅으로 돌아간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다" 공 작가는 1988년 '창작과 비평'에 단편 '동트는 새벽'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봉숭아 언덕' 등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공 작가는 "30년 동안의 저작들을 다시 정리하며 나는 새삼 나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했다.

"작가로서 나는 얼마나 행운자인지, 인간으로서의 나는 또 얼마나 지극한 사랑 속에 살고있는지 말이다. 내게 밥을 주고 내게 아이들의 양식을 주고 내게 술을 주었던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생애를 작가로서 영광되게 보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이후 우리가 더 깊은 사색으로 조금씩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448쪽, 1만7800원, 해냄 /뉴스

전북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발굴 나서...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지원으로 기업회계실무자·웹콘텐츠마스터양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 및 취업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바빠지겠다는 문화형 여성성취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의 일환이다.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3일 '기업회계실무자·웹콘텐츠마스터양성교육' 직업교육훈련생들의 효율적인 취업방안을 논의하고자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회계실무자 양성과정은 여성맞춤직종인 경력회계사무로의 취업지원과정으로 직업소양교육을 비롯해 전산회계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웹콘텐츠마스터 양성교육'은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수요에 맞춰 IT, 디자인, 전자상거래 등 기업맞춤전문기술 과정으로 올해 신규 개설된 과정이다. 포토샵, 일러스트, SNS관리 등 소프웨어 및 마케팅기획 사무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모집, 사전에 MOU체결이 된 여성친화일촌기업과의 현장실습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직종의 취업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전북주책관리연구소, (주)케이이원관광개발, 이노비즈협회전북지회, NV마케

팅, 씨앤피플, (유)엔티에프에저 등 관련 업체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취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새일센터에서 미리 직장예절이나 중소기업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배출한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성공적인 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관련분야 실무능력 뿐 아니라 직무소양교육 등을 진행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익산시, '미륵사지석탑 공개'에 따른 관광객 유치 본격화

익산시(정현을 익산시장)는 미륵사지석탑 공개 및 30일 미륵사지 준공식에 대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근 미륵사지가 복원되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륵사지 입구에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익산의 홍보물(관광, 역사문화, 축제)을 비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미륵사지와 연계하여 익산쌍릉(무왕릉), 왕궁리유적(백제왕궁), 보석박물관을 관광할 수 있는 테마형 시티투어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5일과 6일에는 행정안전부 고급 리더과정 장기교육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탐방과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캠퍼 등 진행되어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 유적 등이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익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미륵사지 인근 주요 관광지로 전국 유일의 보석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보석테마관광지 상설공연 및 이색체험이 6일부터 6월16일까지 진행되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과 체험(사금채취)을 할 수 있어 미륵사지를 연계한 볼거리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정인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